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11월 15일(금)

윤석열 대통령, APEC 정상회의 계기

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

- 안보 · 방산 협력 등 한-캐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논의 -

-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 · 글로벌 현안 논의 -

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현지시간 11/15, 금) 「저스틴 트뤼도(Justin Trudeau)」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, 양국 안보 · 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,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 ·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이번 달 초(11/1, 금) 오타와에서 ‘외교 · 국방(2+2) 장관회의’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, 2+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

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+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하고,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.

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· 안정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, 향후에도

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인태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하고, 향후 양·다자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.

대통령은 내년이 한-캐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, 최적의 경제 안보 파트너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.

트뤼도 총리는 「LNG 캐나다 프로젝트」를 통해 내년에 캐나다산 LNG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, 양국이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 또한,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AI, 사이버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, 향후 대외메시지 발신 및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, 양 정상은 양국이 내년에 각각 APEC과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,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 <끝>